

성명	남소현	수험기간	2023.09.~2024.07.(전업) (+직장병행 10개월)
학교	서울대학교	전공	조선해양공학과
키워드	생동차 직업병행		

## 1차 공부

### 【민법】

1. 61회 1차 민법 95점 / 강사: 김동진

2. 민법은 김동진 강사님과 모든 걸 함께했습니다. 입문강의부터 기본강의, 중급강의, 문제풀이강의, 최종정리강의까지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PASS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1차 민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3. 입문강의를 통해 민법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기본강의와 중급강의를 통해 민법 내용을 배우고, 다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실제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 지 확인하고 헛갈리는 개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정리강의와 최신판례강의를 통해 시험을 대비했습니다.

4. 구체적인 공부방법입니다. 기본강의를 듣고 중급강의를 들으면 전체내용을 한 번 훑고나서 다시 2회독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권법에 대한 진도를 나가고 있더라도 민법 총칙이나 채권법에 대한 내용이 생각 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헛갈리는 개념을, 예를들면 무중과실/무과실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개념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복습했습니다. 물론 이런 헛갈리는 개념에 대해서는 최종정리강의를 통해 강사님이 정리해주시지만, 저는 10월부터 이런 개념을 정리하고 가니 문제풀이 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 강의 때 공부방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진도에 따라 먼저 문제를 풀고나서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강의에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주시기 때문에 강의시간이 깁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문제를 풀고 모르거나 헛갈리는 문제만 뽑아서 들었다보니 강의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할 때 Notion이라는 앱을 통해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림 1) 틀리거나 헛갈렸던 지문들, 또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필요한 지문들을 뽑아 작성하고, 답의 근거가 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적어보면서 두 번 틀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문제집에 나와있는 유사한 지문, 유제를 같이 적으면서 확실하게 개념을 익히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풀이 강의 후 최종정리강의 사이의 기간에 했던 공부방법입니다. 문제풀이 1회독 때 OX 답을 다른 곳에 저장한 다음, 2회독을 시작했습니다. 2회독은 워크북을 통해 진행했고, 정답에 해당하는 OX를 미리 저장해두니 답을 찾기 위해 일일이 본책을 펼칠 필요가 없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2회독 시에는 하루에 약 200~300문제정도를 풀었습니다. 이후 3회독 때는 하루에 500문제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앞두고는 2번이상 틀렸던 지문만 모아서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시험장에 가지고 갈 지문만 뽑아 프린트 해서 쉬는 시간에 회독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림 1 민법 오답노트 예시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1. **암기**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O)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물건적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 a. 제3자도 주장 가능
3.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경우,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이때 그 특약이 유효가 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급부자가 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X)
  - a. 별도 약정은 유효한 게 원칙 → 원칙적으로 수익자는 급부자에게 급부를 반환하여야 함
  - b. 따라서 무효의 항변을 하는 수익자가 무효를 주장, 증명하여야 함
4.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O)
  - a. **암기** 103조, 104조 무효 → 추인에 의해 유효 될 수 없음
  - b. **유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X)

【산업재산권법】

1. 61회 1차 82.5점 / 특허 강사: 박지환(메가), 상표 강사: 최지환(메가), 디자인 강사: 김웅(윌비스) / 특허: 17/20, 상표: 8/10, 디자인: 8/10

2. **【특허, 상표】** 타학원 강사님의 2차 기본강의와 판례강의를 수강하면서 1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별도의 1차를 위한 수업(문제풀이 강의 등)을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2차 기본강의와 판례강의만을 수강하고 독학으로 객관식 문제집을 혼자 3회독 정도 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판례 강의를 수강하고 판례강의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판례를 정독했던 것이 2차 수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월에 박형준 변리사님과 한경훈 변리사님이 진행하는 최종정리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 때 변리사님들께서 최근 판례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3.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은 김웅변리사님의 기본강의부터 수강했습니다. 김웅 변리사님의 1차 기본강의 이후 별도로 제공된 약 20년간의 기출문제를 5회독정도 했습니다. 이후 김웅변리사님의 최종정리 강의로 2023.12.21 시행 개정법에 맞추어 변경된 심사기준 등에 맞추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최종정리강의 자료는 2차 공부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차 공부 당시, 2차 선택과목을 디자인보호법을 하기로 미리 결정했기 때문에 김웅 변리사님 2차 사례강의도 1차 기간동안 수강했습니다. 해당 사례강의에서 판례를 정확히 익히고 2차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1차 시험 후 기초 GS를 기다리지 않고 선택과목 공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차 기간동안에 미리 중요한 두 문자들(출원서에 적어야 하는 항목, 디자인의 설명에 들어가는 심사기준 내용 등)을 외워두었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 **【공통】** 산업재산권법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문제집을 풀면서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예시: 그림 1) 또한 회독을 진행하면서 2번 이상 틀린 문제는 따로 뽑아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법 간에 동일하면서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의무(~해야한다)와 비의무(~할 수 있다)등의 부분에서도 틀리는 지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따로 A4에 정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예시: 국제출원에서 우선심사규정 적용 여부, 형벌 규정 중 침해죄의 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 여부 등) 한 번 정리를 해두고 나니 3법에 따라 교묘하게 다른 내용을 함정으로 낸 지문들을 확실히 파악하고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자연과학개론】

1. 61회 1차 70점 / 물리, 화학, 생물: 독학, 지구과학: 박준희 강사님 / 지구과학: 8/10
2. **【물리, 화학, 생물】** 재학했던 과학고등학교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모두 공부했었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최대한 독학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집을 사서 회독하며 풀었습니다.
3. **【지구과학】** 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배우긴 했었지만, 박준희 강사님을 통해 공부하면 독학하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월비스에서 제공하는 PASS를 결제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기본강의를 수강하면서 기본 교재 뒤에 수록된 기출문제를 1회독 했습니다. 이후 개념을 2회독 하면서 기출문제와 박준희 강사님이 별도로 출간하신 200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자연과학의 경우 법과목처럼 전체 회독할 시간은 부족하여 기출문제 3회독과 200제 2회독은 틀렸던 문제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 **【공통】** 민법, 산업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중 틀리거나 헛갈리는 지문에 대해서는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틀리는 개념이나 지문만을 뽑아 시험을 볼 때까지 반복해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수험생활】

1. 1차는 전부 인터넷 강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관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학원에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로 8시 반에서 23시까지 스터디카페에 있었고, 점심과 저녁은 집에서 해결하는 대신, 체력관리를 위해 밥을 먹고 대략 40분에서 1시간정도는 산책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험생활을 지속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관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1차는 1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까지 여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열정을 1차에 쏟아부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2. 시간관리는 주로 과목과 시간을 병합하여 단위를 정하였습니다. 8시 반부터 12시까지를 오전, 13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를 오후, 20시부터 23시까지를 저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전에는 산업재산권법, 오후에는 민법, 저녁에는 자연과학 등으로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내에 목표한 공부를 못 하는 경우에는 공부 일정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시간에만 공부하고 다음 과목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3. 멘탈관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1차를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12월까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1차 합격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공부하다보니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과도한 긴장감에 공부시간까지 방해받는 걸 느낀 이후에는 '차라리 아는 걸 다 맞고 오자'로 목표를 바꾸어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양을 늘리지 않고 이미 풀어보았던 기출문제의 모든 선지들의 O/X와 그 근거를 이해하고 암기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번 61회 1차 시험 때 모르는 판례가 나오거나 헛갈리는 문제들이 나왔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풀이를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기타】

1,2차를 통틀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마인드셋은 '시험에 나올 부분만 생각하자'입니다. 이 생각은 민법강의를 수강할 당시 김동진 강사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도 호기심이 많은 편이지만, 너무 지엽적이거나 판례에서 판시한 것 이상으로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이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 있는 모든 법들이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아니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범위라는 점에서 이러한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판례에서는 A라는 표장이 제34조 제1항 제2호만 판단하였는데 판례가 판시하지 않은 제34조 제1항 제12호 적용여부가 궁금해도 애써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판시하지 않은 이상 그 정답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수기를 읽고 1차, 2차 공부를 하는 수험생분들도 호기심이 많고 하나의 사안을 두고 다각도로 생각하는 방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파고들었다가는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2차 공부

### 【민사소송법】

1. 61회 2차 59점 / 강사: 이창한 강사님 / 특이사항: 2차 진입 전 기본, 사례, 심화강의 수강 / 수험자료: 통합 민사소송법, 사례 민사소송법, 기출사례집, 2023-2024 기초GS, 실전 A, B형

2. 민사소송법 공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시기에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를 수강하였고, 전업으로 공부하던 1차 공부 시기에 심화강의를 수강하여 기출사례강의를 제외하고 모두 수강한 상태로 2차에 진입하였습니다.

3. 2024년 3월에 2차에 진입한 후에는 기출 사례강의를 수강하며 답안지 작성방법에 대한 감을 익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출사례강의 진도에 맞추어 기본서를 회독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에는 실전 GS A를 인터넷 강의로, 5월에 진행했던 기초GS와 2024년 6월에 진행했던 실전GS B를 실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6월에 걸쳐 이창한 강사님의 2023년도 기초GS와 실전GS A,B형을 함께 풀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에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1회독 하면서 회독 진도에 맞추어 그동안 풀어보았던 2년치 기초GS, 실전 A,B형 문제와 사례집, 기출사례집을 함께 복습했습니다. 양이 많아보일지라도 GS문제와 사례집, 기출사례집을 진도에 맞추어 함께 보면 겹치는 문제들이 많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적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4. 제가 수험기간동안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창한 강사님 말씀대로 진도에 따라 기출문제나 사례집을 보는 것이 실력 향상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서를 중심으로 진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모아보고 나니 비슷한 주제일지라도 어떤 판례가 어느 때에 쓰이는 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3-6월에는 재판상 자백에서 패소가능성설이 나오는 판례가 어느 때에 나오는 지가 헛갈렸었습니다. 하지만 7월에 모든 문제를 진도에 따라 풀어보니 해당 판례가 쓰이는 경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 특히 이번 2차 민사소송법 문제는 GS에 주로 나왔던 최신판례보다는 전통적인 A급 주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양이 방대하여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기본서에 충실하게 회독하면 어느 문제가 나오든 자신감을 가지고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허법】

1. 61회 2차 49.66점 / 강사: 박형준 변리사님 / 특이사항: 2차 진입 전 판례강의 수강(타학원 강의) / 수험자료: 존특허법, 2024 기초GS플러스, 실전A, B

2. 특허법 공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진입 전 2차용 판례강의를 수강하고 진입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4월동안 기초GS플러스를 수강하며 2차 기본강의와 매수업마다 1시간 분량의 GS를 쓰면서 답안지에 대한 감을 익혔습니다. 이후 5월-6월동안 박형준 변리사님의 실전GS B형을 들으면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2시간 분량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혼자서 박형준 변리사님의 실전A형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에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진도에 해당하는 기초GS플러스, 실전A, B형을 복습했습니다.

3.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차 입장에서 기초GS플러스 - 실전B형으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원 기초GS 강의보다는 길지만, 두 달에 걸쳐 확실하게 전통적인 A, B급에 대한 논점들을 완전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이후에 회독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5-6월에 실전 GS B형을 수강하면서 최신 판례가 판례형 문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쟁점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4. 동차 입장에서 한 강사의 1년치 커리큘럼만을 하는 것이 다른 기득이나 삼시분들에 비해서 양이 적어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차 기간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GS플러스, 실전 A,B 문제가 거의 겹치지 않는

데다가 모든 문제를 합치면 약 100문제이기 때문에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강사님들의 GS 문제를 풀면서 양을 늘리기 보다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실제로 본인이 수강한 GS만이라도 충분히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기초GS플러스 문제는 A,B급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여러 번 회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4월 셋째 주부터 같이 기초GS플러스를 수강했던 친구와 스터디를 하면서 2주동안 3~4월동안 진행했던 기본서의 간단한 회독과 더불어 기초GS플러스를 다시 써 봤습니다. 이 2주동안 기본서의 내용을 답안지에 어떻게 현출할 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중요 내용에 대한 복습을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5. 이번 61회 특허는 문제의 길이가 길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예시: 국내우선권주장)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기본서를 중심으로 회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상표법】

1. 61회 2차 59점 / 강사: 한경훈 변리사님 / 특이사항: 2차 진입 전 판례강의 수강(타학원 강의) / 수험자료: 대생 상표법 점(기본서), 선(판례집), 2024 기초GS플러스, 실전 A, B

2. 상표법 공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진입 전 판례강의를 수강하면서 상표 판례의 구성에 대해 익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시: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의 경우 1)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 - 2) 순전히 디자인으로서의 사용 - 3) 상표적 사용에 관한 판례 순서로 구성) 이후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기초GS플러스를, 5월부터 6월까지 실전 GS B형을 실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 혼자 한경훈 변리사님의 실전 A형을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에는 타 과목과 마찬가지로 기본서를 중심으로 그동안 풀어보았던 기초GS플러스, 실전 A, B형을 복습했습니다.

3. 상표법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사안포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판례가 어느 사안에서 쓰이는 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2차 진입 전에 판례강의를 수강하면서 판례의 판시 순서와 사안포섭을 어떻게 하는 지를 꼼꼼하게 보았습니다.

이후에 한경훈 변리사님의 2차 기초GS플러스 강의에서 알려주신 개념과 판례의 사실관계, 선 판례집에 라벨링 되어있는 사안포섭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또한 한경훈 변리사님의 모범답안을 보면서 변리사님의 목차 작성 방식이나 흐름을 최대한 제 것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복습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변리사님이 수업에서 알려주신대로 목차만 보아도 답안지의 논리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목차의 제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 지 고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예시: 그림 2, 'DOGEFIL에 대한 상표적 사용 여부')

사안포섭의 경우에는 문제에 나와있는 사실관계를 모두 답안지에 포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포섭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숫자나 소목차로 표시해주었습니다. 또한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나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들어,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례 사안포섭에서는 항상 '~~의 이유로 상표 A와 B는 수요자간 출처의 오인, 혼동염려가 있기 때문에 양 상표가 유사하다'라는 문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저도 상표 유사판단을 할 때에는 해당 문구로 마무리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시: 그림 3)



## 그림2. 목차 예시

1. 침해요건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상표권이 유효 하여야 하며, ② 침해자가 상표권의 권리 범위 내에서 ③ 상표를 사용해야 하며, ④ 침해자의 과실 이나 ⑤ 허위 표시 등이 없어야 한다.
2. 2항변① - 상표비유사주장	2호 자신의 사용 상표는 'panorama' 이므로 등록 상표인 'DOGEFILM'과 상표비유사하다는 부인 가능하다.
3. 2항변② - 상표적사용 부인 (DOGEFILM에 대한)	2호 비록 'DOGEFILM'이 자신의 판매물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panorama'라는 브랜드 표장은 부적합하며, 특히 비유사하여 'DOGEFILM' 상표로 지칭할 수 없으므로 'DOGEFILM'은 상표적 사용한 것, 즉 출처 표시로 인한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2항변③ - 소집이유	(1) 소집이유에 대한 불응

## 그림3. 사안포섭 예시

(가) 사안 - 상표유사	1) 2상표의 본 - 당박대주 2상표의 본 '당박대주'는 '윌비스'와 '100% 여대생' 원인 등을 대부분 고려하여 상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당박대주'가 인하여 식별력이 강하여, 그 결과 상계 비율에 '당박대주'가 비중이 높게 들어 있어 출처 표시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상표의 본은 '당박대주'가 동일하다.
2) 상표유사 여부	2상표 '당박대주'와 2상표의 본 '당박대주' 출처, 관습, 외관, 음향 등 유사하므로 동일·유사 상표에 사용하는 출처 표시 - 출처 표시 있는 유사상표이다.

4. 결과적으로, 동차분들한테는 어느정도 3월달에 답안지 작성에 대한 감을 익히신 후에는 상표법 판례강의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상표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판례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의 경우 사실관계와 판례 흐름, 그리고 사안포섭 내용을 익히면 답안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의 경우 기초GS플러스 강의에서 판례가 어떤 점에서 기존 판례와 차별점이 있는지, 판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세심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특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1. 61회 2차 63.33점 / 강사: 김웅 변리사님 / 특이사항: 2차 진입 전 김웅변리사님 사례강의 수강 / 수험교재: WK 디자인보호법 통합서브, 기초GS, 실전GS (김웅변리사님, 정다운변리사님)

2. 디자인보호법 공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당시 김웅 변리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한 후 2023년 10월 경에 2023년 3월에 촬영하셨던 김웅 변리사님의 사례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 때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사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1차 때 판시 내용만 외웠던 판례가 실제로 어떤 사안이었던 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에 디자인보호법을 3월에도 놓지 않기 위하여 타학원에서 진행하는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2024년 4월에는 김웅 변리사님의 기초GS강의를 수강하며 실제로 1시간 분량의 답안지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정다운 변리사님의 실전GS와 기초GS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면서 답안지 작성에 대한 감을 유지하였고, 2024년 6월에는 김웅 변리사님의 실전 GS를 실강으로 수강하면서 2시간 분량에 대한 작성과 그 당시 소위 '찍히는 논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7월에는 다른 과목 회독에 시간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기본서를 위주로 회독했습니다.

3. 현재는 김웅 변리사님의 사례강의가 없지만 기초GS강의에서 충분히 중요한 사례들을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업에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계신 강사님만큼 기초GS에서 다뤄주셨던 관련디자인과 구 유사디자인제도에 대한 논점이 실제 시험문제를 연결되어 무난히 선택과목을 PASS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강의력에 있어 정평이 나 있는만큼 한 번 수강하고 복습한 것은 머리에 떠나지 않게 강의해주시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 있어서는 PASS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4. 답안지의 경우에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사안포섭에 특히 힘을 썼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는 실제 판례사안이 거의 변경 없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책에 정리해주신 판례를 많이 보며 그대로 사안포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61회 2차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항상 중요한 논점으로 뽑히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의 경우 사안포섭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서술한 후 판례 결론에 맞추어 유사/비유사로 포섭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시: 그림 4)

그림4. 디자인보호법 유사판단 사안포섭 예시

(2) 사안의 경위	
1) 공동점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구조가 '—'의 형상과 원형은 이루는 점, 본체가 원통형의 관체	
윌비스 변리사학원 1544-3383 patent.willbes.net	
5쪽	
<p>형상이 이루는 점, 리임볼트가 본체 한쪽 끝부분에 각 방향으로 있고, 그 끝단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게 갖춰 6개의 리임볼트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이 공동된다.</p> <p>2) 차이점</p> <p>다만 비교대상디자인은 본체와 리임볼트가 만곡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인직선으로 되어 있고, 리임볼트 리임볼트와 본체 사이 단락형성 정지 연결 볼 볼 각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p>	
3) 대비.	
<p>① 본체와 리임볼트의 차이, 그리고 일정한 연결볼 볼 차이등에 의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양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p> <p>② 리임볼트의 경우 변형가능성이 있어 그 모양은 바뀌는 것이 해당 당업자에게서 출발 관계에서 상당적 가능성 변형가능성이 있거나 당업자에게 창작가능성이 있거나 표현방법에 해당하여 당업자에게서도 동일한 공지디자인으로부터 확인대상디자인은 파이 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을 가극한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성 디자인 항변은 인정된다.</p>	

## [답안지]

1. 답안지를 작성할 때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목차'입니다. 물론 사안포섭을 풍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1,200명의 답안지를 채점하여야 하는 채점위원에게 답안지의 인상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독성 있는 목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차만 보아도 답안지의 논리와 결론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평소에 목차잡는 연습을 많이 하였고, 목차 옆에 해당 목차의 결론을 적극/소극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강사님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셔서 가장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목차를 모범답안에 현출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강사님들의 목차를 체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 그 다음으로 신경을 썼던 것은 사안포섭입니다.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모두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는 사안포섭부분에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 다 작성해도 사안포섭 분량이 어느정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례에서 사용하는 문장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림 4의 '3) 대비'부분의 괄호 2번에 나와있듯이 '



용이창작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섭할 때 '~~한 차이점이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당업자에게 흔한 창작수법에 해당하여'라는 판례 문구를 그대로 담아 실제 판례에서 사안포섭하듯이 답안지를 작성하고자 했습니다.

3. 마지막으로 판례 표현입니다. 판례 작성의 경우에도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 특히 판례 앞부분을 실제 판례 원문과 동일하게 작성하기 위해 암기의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예시: 그림 5)

요약하자면 목차를 통해 논리를 보여주고, 내용을 통해 실제 판례를 따라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림5. 판례 작성 예시

3. <b>양상도 유사 여부 (적극)</b>	
(1) <b>외부관찰법기</b>	
판례는 전상도에서 정제관착이 양상이지면,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즉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전체관찰력으로 유추하여 미수입을 가지고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2) <b>외부특징의 적극적 기준</b>	
판례는 어떤 구성이 외부인지는 외부특징이 주지되는 강안식별특징은 주지되는 특징, 전상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과의 상대적 식별력 정도, 적합 상태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 【수험생활】

쉬는 날을 만들지 않았던 1차와 달리, 2차 수험생활 때에는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초GS플러스 강의 첫 시간부터 박형준 변리사님과 한경훈 변리사님이 쉬는 날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도 월요일 하루를 쉬는 날로 삼았습니다. GS 수업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5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루가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남은 화수목금의 공부 효율을 생각하면 하루를 쉬는 것이 3일의 슬럼프를 마주하지 않기 위한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